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4월25일(부활 제4주일)		5월 2일(부활 제5주일)	
새벽 미사	해 설	손 요안나		도정숙 메히틸다	
	1독서	박안홍 시몬		변은숙 M.막달레나	
	2독서	손수향 카타리나		권미라 리오바	
교중 미사	해 설	황숙자 베로니카		김광순 카타리나	
	1독서	전정환 요한		최효찬 프란치스코	
	2독서	김영애 요안나		이경자 유스티나	
화 답 송	 집 짓 는 이 들 이 내 버 린 - 돌 모 통 이 의 머 릿 돌 이 되 었 네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4월26일(월)	4월27일(화)	4월28일(수)	4월29일(목)	4월30일(금)
해설	변은숙 M.막달레나	강경희 로사	이상희 로사	안정준 바오로	손 요안나
독서	방경자 레지나	신비로운 장미	천상의 모후	평화의 모후	순결하신 모후

4월25일 (부활 제4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전명길(베드로), 곽정현(프란치스코)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가정사목분과
	미사안내	홍보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순교자의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오일규(루카)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박안홍(시몬) 후: 신강순(도미니코)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5월 2일 (부활 제5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신희락(요아킴), 박재현(요한보스코)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성지공원분과
	미사안내	전례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평화의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박종탁(알폰소)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주양원(요셉) 후: 백죽엽(예로니모)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테오)

사랑터

제1731호

부활 제 4주일(성소주일)

2021년 4월25일

주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전 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010-8551-2906(연령회장)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16시어린이, 18:30특전 / (주일) 6:30, 10:30

- 이번주 성소주일 2차 헌금 안내
 - 이번주는 제58차 성소 주일입니다.
 - 성직자와 수도자 양성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모성월 고리기도
 - 월, 수, 금, 일: 19시30분
 - 화, 목, 토: 미사 후
 - 성모의 밤: 5/25일(화)19시30분
 - 일정표: 2면 참조
- 병자영성체 안내
 - 5/6(목)10시 출발
 -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2021년 어린이 첫 영성체
 - 대 상: 초등부 3학년~6학년
 - 일 정: 5/1(토)~6/5(토)
 - 교 리: 매주 토요일, 주일 오후2시~4시
 - 첫모임: 5/1(토) 오후2시, 성전
 - 신 청: 5/1(토)까지 사무실(기간엄수)
- 전입을 환영합니다.
 - 전채홍 안토니오(5구역 중흥1반)
- 미사 참석 시 유의사항
 -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체크, 미사 참석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등의 기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교구청 신축모금 봉헌
 - 그동안 유예했던 교구청 신축기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 개인 봉헌 액수: 1년치 이상 교무금 (2년동안 분납가능)
 - 교구청 건립은 6월경 기공식 예정, 내년 9월 완공 예정
 - 본당으로 봉헌바랍니다.

교구청신축기금 본당계좌
농협843-01-070968
(재)마산교구천주교회 진영성당

교구청신축모금 : 4월17일(토)-4월23일(금)	
김수천 스테파노(3), 정영권 미카엘(1), 송계용 바오로(완) 김승원 마오로(완)	이번주 봉헌액: 7,570,000원 누 계:15,385,000원

교 무 금 : 4월17일(토)-4월23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임홍길(베드로)	2-6	차일순(마리아)	2-4	정용경(골롬바)	4		
이세원(다두)	4	정영자(실비아)	1-5	조영주(로사)	4		
김가영(아나다시아)	3-4	박동주(F.로마나)	4	구정숙(베로니카)	2-3		
김수천(스테파노)	4	김정숙(스텔라)	4	박봉자(엘리사벳)	5-6		
이광금(노엘라)	4-5	윤정두(마태오)	4	이순덕(안나)	3-4		
강미숙(소화테레사)	3-4	이흥기(요한)	4	심상봉(사도요한)	4		
김선미(베로니카)	4	이병관(요셉)	4	강연옥(헬레나)	2-4		
이두남(아가다)	2-4	정영권(미카엘)	4	강지민(마틸다)	4		
구슬이(에메렌시아나)	4	최윤정(헬레나)	3	김영현(요셉)	4-6		
양희주(안드레아)	1-3	최인순(발바라)	6-12	김종구(라파엘)	1-9		
김대환(대건안드레아)	4	서춘자(그라시아)	4	박월순(마리아)	3-4		
이춘악(테레사)	3	김중호(요한)	4	양귀남(마리아)	3		
백현국(사도요한)	3-4	김광근(필립보)	4	이재연(카타리나)	4		
전채홍(안토니오)	4	김희덕(바오로)	4				
교구사업모금(2021년 배정액2,790만원중 515만원 봉헌)							
정용경(골롬바)	4	이세원(다두)	4	심상봉(사도요한)	4		
김선미(베로니카)	4	이병관(요셉)	4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참례자		318명		
			교무금		5,142,000원		
			주일헌금		1,891,000원		
			교구사업모금		188,000원		
			성소후원금		115,000원		
성모성월 고리기도 일정표 (월,수,금,일 - 19:30분 / 화,목,토 - 미사 후)							
일자	요일	주 송 팀	비고	일자	요일	주 송 팀	비고
5/1	토	꾸리아		5/17	월	자비로운 모후	
5/2	일	정의의 거울		5/18	화	거룩하신 어머니	
5/3	월	사랑하올 어머니		5/19	수	1구역	
5/4	화	순교자의 모후		5/20	목	2구역	
5/5	수	천상의 모후		5/21	금	3구역	
5/6	목	신비로운 장미		5/22	토	4구역	
5/7	금	구세주의 어머니		5/23	일	5구역	
5/8	토	인사하신 동정녀		5/24	월	6구역	
5/9	일	검손하신 모후		5/25	화	성모의 밤	
5/10	월	순결하신 모후		5/26	수	연령회/요셉회	
5/11	화	애덕의 모후		5/27	목	성가정회/자모회	
5/12	수	사도들의 모후		5/28	금	제대회	
5/13	목	그리스도의 어머니		5/29	토	성모회	
5/14	금	하늘의 문		5/30	일	젼마회	
5/15	토	평화의 모후		5/31	월	체나콜로기도회	
5/16	일	성실하신 모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제대

성당 정면 중앙에 놓여 있는 제단을 말한다. 이 제단은 성당의 중심이며, 성당도 이를 중심으로 건축된다. 그리고 신자들도 이를 중심으로 사제와 함께 성삼위이신 하느님께 제사를 올린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탁을 사용하셨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사도들도 역시 나무로 만든 상에서 ‘빵을 나누는 예식’ 즉 영성체를 해주었다. 4세기 이후에는 돌로 만든 제대가 쓰이게 되었고 6세기 이후에는 제단은 꼭 돌이라야 했다. 오늘날에는 구별이 없다. 이 제단은 갈바리아 산도 의미하며 신령한 바위이신 그리스도도 의미한다. 따라서, 제단은 주교가 축성하는데 이유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릴 장소이며 또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난 사람

천주교 신자인 또 한 사람은 9년째 사형수인 김아무개입니다. 나는 목욕을 하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사동 목욕 시간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눈빛이 선하고 손길이 부드러운 그가 바로 김 아무개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는 사방에서 변기 청소와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아픈 사람이 생기면 밤새 곁에서 간호를 하고 항상 술선수범하며 밝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형수들 중에는 감형을 받으려고 일부러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금방 표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억지로 하는 일을 얼마나 감추고 오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한결같이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동갑내기인

관계로 친근감이 느껴져서 가끔씩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그가 석 달에 한 번씩 사동을 옮기는 바람에 금방 헤어졌지만, 그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감형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자 그는 웃으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 뜻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육신이 이승에 있든 저승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했어요.

나는 그가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저지른 무서운 범죄를 통해 역설적으로 그는 하느님의 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이미 삶을 넘어선 사랑, 집착하지 않는 나눔의 진수를 깨달은 것입니다.